HTML과 나

#Entry 1

고삼이 되고, 여러 힘든 순간들을 지나오고 감정이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감정의 표출구가 필요해졌다. 주변 친구들도 그 필요성을 느꼈는지 올해 초부터 페이스북에서 부계정을 만들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, 그런 모습들이 꽤 좋아보여서 나도 한때 부계를 파볼까 고민도 해봤다. 하지만, 부계를 파게 되면 귀찮은 일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 포기했다.

그렇지만 사실, 옛날부터 나는 ‘나만의 온라인 상 공간’에 대한 꿈이라고 할까, 이상 같은 것을 줄곧 가지고 있었다. 중학교 초부터 무엇인가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고 싶어서 네이버 블로그도 개설해본 적이 있었고, 일본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줄 알게 된 중학교 2학년, 3학년 정도에는 일본 블로그 플랫폼(Ameba, Hatena)에서도 무료 블로그 개설 서비스로 내 블로그를 만들어본 적이 있다. 이 당시에는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물 흐르듯 살았기 때문에, 블로그 개설 목적도 감정의 표출구라기보다는 온라인 상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에서 그쳤던 것 같다. 일본 블로그 플랫폼을 사용했던 이유도 일본인들과 여러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교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. 그런데, ‘뭔가’ 마음에 계속 안 들었고, 이로 인해 흥미도 금방 잃어버리게 되어 손을 놓게 되었다.

얼마 전에 HTML 코딩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나는 이 ‘뭔가’가 무엇인지 몰랐다. 아니, 사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. 그런데, 우연히 HTML을 접하게 되어 독학을 시작했던 나는 최근에 들어서야 그 이유를 알아버렸다.

네이버, 아메바, 하테나 등 블로그 플랫폼들은 개개인이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,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시스템에 제한을 걸어놓았다. 사용자가 무료 블로그 플랫폼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, 몇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.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에서 블로그의 목적을 고르라고 하고, 이미 디자인 되어있는 템플릿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. 그럼 10초만에 블로그가 만들어진다. 사용자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그 목적과 디자인에 맞는 텍스트만 채워 넣으면 된다. 그리고 블로그 URL에도 블로그 플랫폼의 이름이 붙는다.

난 처음 블로그를 개설할 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싫었다. 별 목적 없이, 그냥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블로그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데, 다짜고짜 블로그의 목적을 고르라고 한다? 내 블로그 디자인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짜놓은 것을 받아다가 수동적으로 글자만 채워 넣어야 한다? 이 무슨 어이없는 상황인가!

하지만 HTML은 그런 것 없다. 온라인으로 HTML과 CSS 마크업 언어만 몇 주 독학하면 누구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. 마치 나에게 하나의 거대한 흰 도화지가 주어진 것만 같다. 이 도화지 위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고 적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설렘과 쾌감을 HTML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다.

그런데, 사실 나만의 HTML 웹사이트를 개설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감정 표출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. 이번 학기 학교 과제연구 수업에서 아이슬란드어-바스크어 피진어의 18세기 기록을 토대로 아이슬란드어의 정자법 체계를 연구하는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, 그 기록이 전부 바스크어로 되어 있어서 꽤나 난항을 겪고 있다. 바스크어가 워낙 소수 언어라 구글 번역기도 제대로 번역을 못 해주고 있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는데, 결국 최후의 방법은 바스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, 이 기록을 인터넷에 올려 도움을 청하면 누군가는 보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희망에서 시작한 페이지이다. 그런데, 뭔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개인 블로그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블로그로 사용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.

HTML 페이지를 새로 시작해본 기념으로 한 번 끄적여봤다. 이 페이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! 7월 말에 대회 참가를 위해 체코 프라하로 떠나는데, 그때 짧은 기행문도 몇 편 올려볼 예정이다. 평소에도 많이 글을 올려볼테니 독자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!